

“치킨 한 마리 말고 ‘10호’ 주세요”



연 윤 열 의
푸드톡

닭은 보통 삼계와 육계로 구분하는데, 삼계는 주로 삼계탕 용도로 사육된 도계 중량 400~500g의 어린 닭을 말한다. 육계는 고기용으로 개량되어 성장이 빠르고 살코기가 많다.

우리가 즐겨 찾는 치킨은 육계를 말하는 데 오래 전부터 닭의 중량 대신에 ‘호수’라는 그들만의 은밀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계중량이 가장 작은 451~550g은 5호라고 칭하고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기인 10호는 951~1050g, 11호는 1051~1150g, 가장 큰 30호는 2951g 이상이다.

12월 16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치킨 중량이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마련한 치킨 중량 표시제는 B*C, B*Q, 교*치킨, 처*집양념치킨 등 주요 10대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브랜드는 매장이나 배달 주문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럼 (g) 단위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며, 한 마리 메뉴의 경우 ‘10호(951~1050g)’와 같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 간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적발 시 처벌보다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게도 기간으로 운영된다. 제도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마다 주요 치킨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 강력한 것은 ‘중량 품수제 보센터’의 운영이다.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중량이 줄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면, 소비자단체가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나 식약처에 통보해 조사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명백한 빈틈이 존재한다.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기존보다 중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공지’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

품 크기·중량·품질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의 역사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꽤 오래되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비단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감자칩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한 통, 심지어 화장지 길이까지 은밀히 줄어드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부담 속에서 기업이 선택한 ‘꼼수’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치킨중량 표시제는 그 꼼수를 막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가장 논란이 많고 중량 측정이 비교적 명확한 치킨을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비자에게 ‘알 권리’와 ‘선택할 도구’를 넘겨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치킨 소비자는 ‘한 마리’라는 추상적인 말보다 ‘얼마나 큰 한 마리’인지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업체들은 더 이상 몰래 양을 줄이는 ‘꼼수’보다 맛, 품질, 서비스, 그리고 정직함으로 대표되는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치킨을 주문할 때 한 번쯤 메뉴판에 표시된 그 숫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그 작은 숫자가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다.

/식품기술사·글로벌비건인증원장
인천푸드테크협회사무총장·식량안전연구센터장

K-지폐의 처지



김 언 세
(정책사회부)

K-푸드가 연일 상한가다. 세계인 다수가 달고나를 알고 떡볶이도 해 먹는다. 한국에서 근무하다 최근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한 외국 여성의 사연을 전해 들었다. 한국 있을 때 학교 다녀온 아이가 밥상 앞에서 김만 찾았다는 후문. 이 엄마는 ‘이제 뭘로 애 밥해 먹이나’라며 푸념하던 끝에 출국 전 김을 잔뜩 사 갔다고 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 보고 “재패니스? 차이니즈?” 하며 말 거는 거리 상인들이 해외에 흔했다. 지금은 아니다. 한국인들과 마주친 다른 나라 관광객 무리가 “꼬레, 꼬레이노” 하며 수군댄다. 한국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시대다. 그런데 소위 ‘돈의 체면’

은 말이 아니다. 외국 가면 10유로, 50유로 등 지폐를 꺼내 써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돈 1만7000원, 8만5000원쯤 된다. 그들은 두 자릿수인데 우리는 다섯 자리나 된다.

지금의 화폐는 5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 1962년에 발행된 화폐개혁에 따라 70년대 초중반 순차적으로 발권된 5000원권·10000원권·1000원권 그대로다. 이후 2009년에 50000원권이 추가로 발권됐을 뿐, 나머지는 위변조 대응 목적의 도안 교체만 실시됐다. 나라 경제규모가 1962년과 비교해 수천 배 뛰었다. 그런데 돈의 액면단위는 그대로이다 보니 서울 어디 집값 수십억, 가구빚 2000조 등의 막대한 액수를 별 감흥도 없이 대한다.

미화 1달러 대비 코스타리카 화폐는 490 콜론, 헝가리는 320포린트, 튀르키예는 42리라, 체코는 20코루나, 멕시코는 18페소 수준이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회원국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달러화 대비 자국화폐 환율이 네 자릿수인 곳은 한국 포함 2곳뿐이다. 한국에 10억대 아파트가 흔하지만 달러 10억은 어마어마하다. 10억 불이란 수치는 원화 1조에 4800억을 더해야 나온다.

더는 미룰 때가 아닌 듯 싶다. 10000원에서 0을 두세 개 빼는 액면단위 절하가 필요하다. 이른바 ‘리디노미네이션’이다. 만 원을 백 원 또는 십 원으로 하향, 아니면 만 원=10한 등의 명칭변경을 시도해 볼 작하다. 물가급등 우려를 부각하는 회의론도 물론 나오겠지만 결가지에 불과하다.

K-푸드에 특히 더 열광한다는 아시아는 어떤가. 원화 환전 시 1홍콩달러가 190원 선, 말레이시아의 1링깃이 360원 선이다. 오만의 1리알과 쿠웨이트의 1디나르는 각각 3800원대, 4800원대에 이른다. 코리아 마니의 값어치가 추려해 보인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일단 새로운 일에 도전하도록. 48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절제가 필요. 60년생 제 분수도 모르고 경가망동에 주의. 72년생 모르는 곳에서 기술력으로 나를 알아준다. 84년생 발을 두러워하고서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없다.



37년생 겨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49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61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일 수 있다. 73년생 배우자가 떠나니 자녀들도 외로움만 더한다. 85년생 때로는 갈끔한 포기가 필요.



3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0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62년생 뒷사람을 닮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74년생 문서는 변화하여 비옥이 되다. 86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39년생 나의 인생이니 내 탓 말고 공부하라. 51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라. 63년생 낙심할 것은 없도록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75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87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40년생 관인 상생이니 계약관계에서 기쁜 소식 온다. 52년생 일찍 귀가하여 저녁을 가족끼리. 64년생 우울증인지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다. 76년생 가까운 친구의 감언이설이나를 슬프게 한다. 88년생 감정의 이사는 신중히.



41년생 분실 수를 주의. 53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65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77년생 영업은 아득이. 89년생 깊은 강물과 같이 속 깊은 사람은 많지가 않으니 내가 이해를.



42년생 어린 사람과 닮음이 생기니 말조심. 54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이 들어온다. 66년생 귀갓길에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라. 78년생 오래 사는 타향이 이제는 고향 같은데. 90년생 주변에 인심을 잃지 않아 평온한 날.



43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빛을 감로어 오는 날. 55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라. 67년생 들어가자마자 불평만. 79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경계하라. 91년생 방해 실패가 있지만, 극복하게 된다.



44년생 조용한 가운데 일을 처리하니 이익이 두배. 56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68년생 언제나 오늘날 같았으면. 80년생 재물에 마가 끼었으니 양보의 미덕으로 진행. 9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마귀둔 일을 처리.



45년생 이익을 두고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57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69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81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93년생 지출관리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46년생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 58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70년생 경쟁자가 생기니 일의 마무리가 힘들 수. 82년생 남의 탓보다는 내 탓이 크니 남의 핑계를 대지 말 것. 94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47년생 돌을 얻기 위해 하나를 양보. 59년생 사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 나온다. 71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가 얻는다. 83년생 친구의 소식이 병원에서 온다. 95년생 돈거래를 하려면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해야.



김상회의四季 지혜

잘 모르는 사람은 命理學을 운세나 길흉화복을 점치는 도구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깊은 근간에는 수천수만 년 동안 동양 철학이 축적해 온 인간과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명리학은 사주팔자로 타고난 삶의 지도를 읽고 대운과 세운이라는 변화에 맞춰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삶의 지침서이다. 명리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지혜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때를 알고 균형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명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떤 인생이든 세상살이의 굴곡은 영원히 지속하지 않으며 대운과 세운의 순환 아래 놓인다. 운의 순환을 잘 이해하면, 힘겨운 상황에 부닥쳐도 곧 빛이 올 것을 알기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잘 나갈 때도 자만하지 않고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하락을 대비하게 된다.

이렇게 운의 시계를 읽어내는 지혜를 갖추면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또 다른 인생 지혜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제대로 알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주팔자는 자신의 오행과 십성의 구성을 보여준다. 어떤 기운이 강하고 약한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식상이 강한 사람은 창조성이 남달라서 틀에 박힌 조직 생활보다 자유로운 예술이나 사업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관성이 강한 사람은 조직의 질서를 중시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공직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자신의 사주에 관성이 부족한데 억지로 높은 자리를 욕심내거나, 식상이 약한데 창의력이 중요한 직업을 택하면 내내 흠뻑길을 걸어야 한다. 명리학은 자신의 선천적인 그릇과 재능을 알게 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지혜, 命理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9		
	6					4	3	
9	5							
				3				8
4			5		1			7
5				2				
							9	6
	9	4				5		
		5		9	6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1			
1		4	5	7		3		2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2	3	6		8
				7				
								1
9		2						
	5	1					9	8
						5		7
	3	</						